

## 자영업의 눈물... '추억의 돈가스' 유생촌 문 닫았다

40년 광주시민 '만남의 장소' 충장로 본점 코로나19의 벽 못 넘어  
거리두기 장기화 음식점·노래방·실내체육시설·예식장 등 줄폐업

40년 가까이 돈가스를 판매하며 광주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광주 명물이자 충장로 추억의 장소인 '유생촌' (광주시 동구 본점)이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문을 닫았다.

유생촌은 광주의 도심인 충장로에 1983년 개점한 이후 돈가스를 만들어 오며 지역민들에게 우다방(광주 우체국), 학생회관 등과 함께 도심 '만남의 장소'로 애용된 추억의 공간이다. 한때 뷔페형으로 영업 방식을 바꿨다가 코로나 이후 다시 한 가지 메뉴를 판매하고 도시락도 판매하는 등 영업 방식도 바꿨지만 코로나19라는 높은 벽을 넘진 못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영업 제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광주지역에서 일반음식점 중 폐업을 한 곳은 892곳에 달한다. 월별로 보면 1월 106곳, 2월 94곳, 3월 148곳, 4월 162곳, 5월 156곳, 6월 126곳, 7월 100곳으로 월 평균 100곳이 폐업을 하고 있다. 매일 3곳 이상의 음식점들이 문을 닫는 셈이다.

이처럼 일반음식점들의 폐업이 줄을 잇는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및 연장이 이유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분석이다. 코로나19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물론 밤 10시 이후 영업 중단(포장만 허용)까지 겹치면

서, 더 이상 버티내기 힘든 막다른 길에 다다른 상황이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으로 업장 내 동시 입장 손님이 줄어들었다. 영업시간까지 제한되다 보니 수입이 월세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모든 상업 분야가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5월 광주지역에 1039곳이었던 노래방은 올해 5월 984곳으로 5.29%감소했다. 전남지역도 725곳에서 698곳으로 3.72%(27곳)가 줄었다.

광주 노래업협조합 관계자는 "10시 이후 영업제한과 코로나19와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10시 이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활동을 안하고 10시 이후에는 활동을 하는 것이냐"고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오는 19일께 소상공인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밤 10시-다음날 새벽 5시 운영제한·사위장 운영금지·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들도 폐업의 쓰나미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최근 광주시 남구 진월동의 한 대형 헬스클럽이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관리비, 강사료, 대출 원금 및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했다. 헬스클럽이 돌연 회원들에게 문자메세지만을 보내고 다음날부터 문을 열지 않자, 당장 금전적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업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있는 돈가스 전문점 '유생촌' 유리창에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여있다. 지난1983년에 문을 연 유생촌은 광주의 명물이자 추억의 장소로 40년 가까이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영업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끝내 문을 닫았다.

원들은 업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광주지역 음식점들도 49명까지 참석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음식점도 1년새 광주는

25곳에서 23곳으로 2곳(8%)이 줄었고, 전남은 43곳에서 40곳으로 3곳(6.98%)이 감소했다.

한 음식점 관계자는 "올해 초 잠시 코로나19가

주춤할 때 예약이 늘었으나, 최근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대부분 예약을 미루고 있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국민의당-국민의힘 합당 결렬...안철수 또 '마이웨이'

야권 대권구도 유동성 높아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하면서 야권 대권 구도도 요동치고 있다. 당분간 제3지대 독자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야권의 대권 구도에 한층 유동성이 높아지게 됐다.

〈관련기사 4면〉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을 기대하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합당 결렬 배경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지지층의 확대를 가장 중요한 통합의 원칙이라고 강조해왔지만,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제1야당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며 "국민의당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향후 따로 말씀드릴 시간을 갖겠다"며 "우선은 당을 추스르고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논의해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과의 연대 가능성에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라도 만나서 의논할 자제가 돼 있다"고 답했다.

안 대표는 대선 전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저는 정권교체를 바라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원하는 합리적인 중도층을 대변하고자 한다.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광복절 연휴 코로나 125명...초중고 개학 '초비상'

광주·전남, 광복절 연휴 뒤골 교회·보험사 등 확진 급증  
확산 못 막으면 4단계 불가피

광주·전남에서 광복절 연휴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5명이나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주요 감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막바지 여름휴가와 광복절 연휴에 이어 일선 학교의 개학까지 맞물리면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마저 우려된다. 감염 경로도 교회와 보험사, 타지역 관련 등으로 다양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확진자도 급증함에 따라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방역당국은 일단 시·도민들에게 외출과 모임 자제, 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집단 감염 사태가 이어질 경우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

에서 14일 29명, 15일 29명, 16일 오후 2시 현재 10명 등 68명이 확진되면서 누적 3719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도 18명, 27명, 12명 등 57명(누적 2341명)이 확진됐다. 광복절 연휴 사흘간 광주·전남에서 모두 12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광주에선 서구 보험회사와 관련해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누적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다. 지난 14일 2명이 확진된 광산구 교회와 관련해서는 15일 7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 9명 가운데 4명은 가족, 3명은 외국인이다. 광주시는 7월 이후에만 외국인 78명이 확진됨에 따라 지역에 사는 유학생, 근로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하기로 했다. 시는 광산구 월곡동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이동식 검사소를 설치하고 익명 검사도 가능하게 했다.

전남에서도 22개 시·군 가운데 12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순천 12명, 여수 11명, 곡성 6명, 광양 5명, 진도 5명, 화순 4명, 목포 4명, 나주 3명, 담양 3명, 영광 2명, 영암과 완도 1명씩이다.

여수에서는 4명이 부산 확진자와 접촉으로, 가족 3명은 충남 공주를 방문하고 나서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곡성에서는 가족 5명이 경남 남해 친척 집을 방문한 뒤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확산세와 맞물려 여름방학을 마친 일선 학교의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학교 감염→가정 감염→직장 감염 등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마친 일선 학교의 개학시즌을 맞아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방역 행정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광주서 특별전 ▶6면

굿모닝 여행 - 남도 오디세이 '진도' ▶18·1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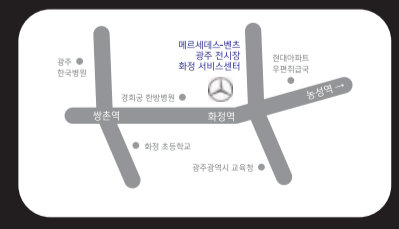
'순흥민은 길러다'... 맨시턴 결승골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EQA  
This is for a new generation.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학원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공충고지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서구 광역시 광산구 광명로 516(수환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림대로 603(남광동 20소문동)  
주만 서비스센터 (062)94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당동로 520(수환동)

정부 승인 표준 정비 및 부품  
EQA 250 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4.1 | 도상: 4.3, 고속도: 3.9 | 1회 충전거리(km) : 306, 공차중량(kg) : 1995, 배터리 용량(kWh) : 6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면허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장기 저용이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